

재가 뇌졸중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

강현숙 · 김원옥 · 김정화 · 왕명자 · 현경선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In-home Use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by Stroke Patients

Kang, Hyun Sook · Kim, Won Ock · Kim, Jeong Hwa · Wang, Myung Ja · Hyun, Kyung Sun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use of the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CAM) in stroke patients, in order to provide the appropriate CAM information to patients recovering from stroke. **Methods:** Subjects were 201 stroke patients who were randomly selected from a health care center and a welfare center. Data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llected from February to April 2009 was analyzed using SPSS/WIN 12.0. **Results:** Subjects averaged 67.4-yr-of-age. Of the 201 subjects, 69.2% had used CAM. CAM us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iagnosis, duration of post stroke, paralysis, and education about CAM. CAM was used in the mid-portion of treatment by 47.3% of the subjects, and 41.7% used it for more than a year. Of those using CAM, 52.7%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their reason was the belief in the treatment's beneficial effects. Of the subjects 89.2% reported most frequent use of oriental medicine. **Conclusions:** The majority of stroke patients surveyed frequently and continuously used CAM in their mid-period of treatment expecting positive effects.

Key Words: Stroke, Patients, Alternative medicin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급성기 사망률은 감소되고 있지만 질병양상은 만성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성질환의 하나인 뇌졸중은 국내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연령인구 10만 명당 61.4명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875.6명으로 보고되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이렇게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노인 인구증가와 당뇨, 음주, 비만, 운동부족, 고혈압, 흡연 같은 위험인자 조절이 잘 안되고, 뇌졸중의 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Kim & Choi, 1998). 뇌졸중은 생존자의 90% 이상이 뇌병변 부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경험하며, 특히 70-80% 이상이 편마비라는 영구적인 장애를 지니게 된다(Bruce & Dobkin, 2003). 더구나 뇌졸중의 완치율은 10% 미만이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현대의학이 흡족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질병관리 부분에 대해 전통적인 건강관리 즉,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다(Lee, 1999).

보완대체요법(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CAM)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정통의학, 주류의학, 제도권 의학, 정규의학에 속하지 않은 모든 보건의료체제 및 이와 동반된 이론이나 신념, 그리고 진료나 치료에 이용되는 행위와 제품 등의 치유자원 전체를 통칭(Korean Medical Association, 2005)하며, 미국의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

주요어 : 재가 뇌졸중 환자, 보완대체요법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동서간호학연구소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eong Hwa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9425 Fax: 82-2-961-9398 E-mail: smileprof@khu.ac.kr

투고일 : 2009년 11월 11일 심사외뢰일 : 2009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6일

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 (2005)에서는 현대 주류의학의 일부가 아니라고 여기는 다양한 의료 및 건강관리 체계, 기술 및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완대체요법이 일시적인 치료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에 적절한 치료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Yoo et al., 2000)가 보고된 이후로 건강전문인들을 중심으로 현대과학의 발전 속에 가려졌던 보완대체요법의 원리를 규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건강전문인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건강을 유지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대체요법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et al., 2003). 이렇듯 보완대체요법을 추구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약물, 복잡한 기술을 이용한 치료에 초점을 둔 서양의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불만, 높은 의료비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의료권 밖에서 진정한 안녕을 얻고자 하는 마음(환자의 가치, 세계관, 영적, 종교적 철학, 믿음)에서 예방적, 치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의료시장에서 전통적인 의료체계에 대한 보완대체로 떠올라 의학적 다원주의를 형성하고 있다(Astin, 1998). 그러나 보완대체요법은 아직도 과학적인 근거 및 효과 측정방법의 부족과 의료인의 인식부족, 그리고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할 지라도 임상에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Hong & Park, 1999)에 의하면 보완대체요법을 막연한 기대와 경험적 증거에 근거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k과 Cho (2004)의 연구결과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고, Yang, Shin, Joo와 Kil (2004)의 연구에서는 근력약화와 마비로 인해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다. Oh (2008)의 연구에서도 뇌졸중 후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대상자가 61.3%였으며,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체보건의료비용에서 대체요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Oh, & Lee, 2004).

따라서 해를 거듭할수록 보완대체요법 이용자와 그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최근의 뇌졸중 환자들이 보완대체요법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어떤 종류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뇌졸중 환자와 간호제공자에게 보완대체요법 시행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재가 뇌졸중 환자가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교육 자

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 뇌졸중 환자의 제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재가 뇌졸중 환자가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재가 뇌졸중 환자의 제 특성과 보완대체요법 이용여부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가 뇌졸중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의 선정 및 표집 방법

연구 대상의 근접모집단은 S시 소재 J보건소와 K복지관에 내소하여 재활치료중인 재가 뇌졸중 환자이다. 대상자는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으로 선정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표집방법은 자료수집의 용이성 때문에 임의표출법을 사용하여 2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뇌졸중환자의 보완대체요법이용실태를 조사한 Mok과 Cho (2004)가 개발한 설문지와 Yang 등(2004)이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 질병 특성 6문항, 보완대체요법이용 관련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가 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의 자가 기록이 어려운 대상자는 자료수집에 대한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이 문항을 읽어 주고 응답을 대신 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 중 22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201부가 수집되었으며 탈락률은 19.6%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연구목적과 변인의 특성에 따라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과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실태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제 특성별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여부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67.4세였으며 60-69세가 3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79세가 29.4%였으며, 60세 이상이

76.1%였다. 성별은 여자가 51.2%로 남자보다 약간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는 61.7%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22.9%, 고등학교 20.4%, 대졸 14.9% 순이었다. 직업은 17.4%가 가지고 있었으며, 월수입은 71.1%가 100만원 이하였다. 진단명은 뇌경색이 59.2%로 뇌출혈보다 더 많았으며, 발병 후 기간은 2년 이상이 49.2%로 절반에 가까웠다. 마비는 80.1%에서 경험하였으며, 재활치료도 80.1%가 받았고, 일상생활 기능 정도는 42.8%가 의존적, 37.3%가 일부보조, 19.9%는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according to Use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N=2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Use of CAM		χ^2	p
				Yes (n=139) n (%)	No (n=62) n (%)		
Age(yrs)	Under 50	10	5.0	6 (4.3)	4 (6.5)	7.44	.114
	50-59	38	18.9	20 (14.4)	18 (29.0)		
	60-69	66	32.8	50 (36.0)	16 (25.8)		
	70-79	59	29.4	44 (31.6)	15 (24.2)		
	Over 80	28	13.9	19 (13.7)	9 (14.5)		
	M±SD	67.4±11.04					
Gender	Male	98	48.8	64 (46.0)	34 (54.8)	1.33	.159
	Female	103	51.2	75 (54.0)	28 (45.2)		
Spouse	Yes	124	61.7	87 (62.6)	37 (59.7)	0.15	.754
	No	77	38.3	52 (37.4)	25 (40.3)		
Education level	None	16	8.0	14 (10.1)	2 (3.3)	6.56	.161
	Elementary	68	33.8	49 (35.3)	19 (30.6)		
	Middle school	46	22.9	29 (20.9)	17 (27.4)		
	High school	41	20.4	24 (17.2)	17 (27.4)		
	University	30	14.9	23 (16.5)	7 (11.3)		
Occupation	Yes	35	17.4	24 (17.3)	11 (17.7)	0.01	1.000
	No	166	82.6	115 (82.7)	51 (82.3)		
Income (10,000 won)	<100	143	71.1	100 (71.9)	43 (69.4)	4.18	.124
	100-200	32	15.9	18 (12.9)	14 (22.6)		
	>200	26	12.9	21 (15.1)	5 (8.1)		
Diagnosis	Hemorrhage	82	40.8	47 (33.8)	35 (56.5)	9.10	.003
	Infarction	119	59.2	92 (66.2)	27 (43.5)		
Duration of post stroke (yrs)	Less 1	47	23.4	18 (12.9)	29 (46.8)	34.28	.000
	1-2	55	17.4	36 (25.9)	19 (30.6)		
	2	99	49.3	85 (61.2)	14 (22.6)		
Paralysis	Yes	161	80.1	113 (81.3)	48 (77.4)	9.10	.003
	No	40	19.9	26 (18.7)	14 (22.6)		
Physical therapy	Yes	161	80.1	114 (82.0)	47 (75.8)	1.04	.341
	No	40	19.9	25 (18.0)	15 (24.2)		
Activity of daily living (ADL)	Independent	40	19.9	28 (20.1)	12 (19.4)	1.29	.526
	Need assistance	75	37.3	55 (39.6)	20 (32.3)		
	Dependent	86	42.8	56 (40.3)	30 (48.4)		
Previous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CAM	Yes	55	27.4	50 (36.0)	5 (8.1)	16.80	.000
	No	146	72.6	89 (64.0)	57 (91.9)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

전체 대상자 201명 중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대상자는 139명이었으며, 이용 시기는 치료도중 47.3%, 발병즉시 19.4%였고, 이용기간은 1년 이상 41.7%, 3-6개월 22.3% 순이었으며, 이용한 이유는 치료에 대한 효과 기대가 52.7%로 가장 많았다. 알게 된 경로는 가족이 2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이웃 20.4% 순이었다. 이용 후 느낌은 혈액순환이 잘된다 20.9%,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15.9%, 신경.운동 기능이 좋아진다 10.4%순으로 나타났다. 보완대체요법이 양방치료보다 좋은 점은 몸에 해가 없다 24.4%, 정서적으로 안정을 준다 16.4%, 몸을 보호해준다 12.9% 순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여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과 보완대체요법 이용 여부를 비교한 결과 진단($\chi^2=9.098, p=.003$), 발병 후 기간($\chi^2=34.282, p=.000$), 마비유무($\chi^2=9.098, p=.003$), 보완대체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Use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N=13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eriod of use	Before onset	5	2.5
	Onset	39	19.4
	During treatments	95	47.3
Duration	Less than 3 month	28	20.1
	3-6 month	31	22.3
	6-12 month	22	15.8
	More than 1 yr	58	41.7
Cause of use	Trusting the effect	106	52.7
	Informed from others	14	7.0
	Recommended from others	8	4.0
	Based on scientific results	2	1.0
	Less side effects	1	0.5
	Traditional habit	7	3.5
	Others	1	0.5
Source of information	Neighbor	41	20.4
	Family	49	24.4
	Mass-media	13	6.5
	Others	36	17.9
Subjective effects	No effects	20	10.0
	Promoting blood circulation	42	20.9
	Enhancing vitality	12	6.0
	Improving neuromotor function	21	10.4
	Improving walking	5	2.5
	Emotional comfort	32	15.9
	Others	7	3.5
Merits over western medicine	No harm	49	24.4
	Preserving vitality	26	12.9
	Having less side effects	14	7.0
	Economic efficiency	5	2.5
	Emotional comfort	33	16.4
	Others	8	6.0

요법에 관한 교육경험 유무($\chi^2=16.800, p=.000$)에 따라서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4. 보완대체요법 종류

보완대체요법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 139명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한 보완대체요법은 한방요법(침술, 뜸요법, 부항요법, 한약 등)으로 89.2%였으며, 다음으로 식이 및 영양(약초, 녹즙, 버섯류, 우담, 녹용, 홍삼 등) 48.2%, 수기요법(마사지, 향기요법, 운동요법 등) 38.8%, 에너지 요법(자기장 요법, 지압, 기공, 수지침, 이침, 스티커 침 등) 38.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논 의

뇌졸중환자는 대부분이 편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퇴원 후에도 장기적인 치료와 간호가 요구되므로, 특히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보완대체요법에 매우 관심이 높다.

본 연구결과,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69.2%로 나타났다. 이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Mok과 Cho (2004)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 71.6%와 유사하며, Yang 등(2004)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 60.0%, Oh (2008)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 61.3%, Jin (2009)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 55.4%, 각종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Lee와 Park (1999)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 51.2% 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Table 3. Type of Use related to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Category	Type of CAM	n*	%
Diet and nutrition	Herb, green juice, mushroom, bear's gall, red ginseng, young antlers of deer, etc	67	48.2
Energy therapy	Magnetic field therapy, hand acupuncture, acupressure, ear acupuncture, gigong, sticker acupuncture, etc	53	38.1
Manipulation	Massage, aromatherapy, kinesitherapy, etc	54	38.8
Spirit and body method	Relaxing therapy, meditation, yoga, taichi, humer therapy, praying, etc	35	25.2
Oriental medicine	Acupuncture, moxibustion, cupping, herbal medicine, etc	124	89.2

*Multiple response.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Lee와 Son (2002)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 77.5%, Lee, Kang과 Lee (1997)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 80.6%, 노인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Park 등 (2003)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 94.2% 보다는 낮았다. 이와 같이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이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대상 질병, 대상자의 특성, 조사시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뇌졸중환자의 60% 이상이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뇌졸중 환자간호에서 보완대체요법의 정의, 종류, 효과 등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유무는 나이, 성별, 배우자, 교육정도, 직업, 수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Mok과 Cho (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으나, Hong과 Park (1999)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직업, Yang 등(2004)의 연구에서는 성별, Jin (2009)의 연구에서는 학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뇌졸중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되므로 앞으로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유무는 진단, 발병 후 기간, 마비유무,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물리치료 유무, 일상생활동작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Yang 등(2004)의 연구에서는 진단과 유병기간이 보완대체요법의 시행여부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Mok과 Cho (2004)의 연구에서는 선행질환, 재활치료, 일상생활기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것은 선행질환이 있는 경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 정도가 중증이기 때문에 보완대체요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가 뇌졸중환자와 입원치료 중인 뇌졸중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을 필요로 하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동일한 연구도구를 이용하여 재가 뇌졸중환자와 입원중인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현황을 비교·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뇌출혈보다 뇌경색이 더 이용을 많이 하였고 Yang 등(2004)의 연구에서도 뇌경색에서 이용을 많이 하여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볼 때 외과적 치료중심의 뇌출혈보다 뇌경색일 경우 보완대체요법에 치료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가 뇌졸중 환자들은 발병 후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마비가 있는 경우에 보완대체요법 이용을

유의하게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뇌졸중이 뇌조직의 특성상 일단 비가역적인 변성이 이루어진 이후의 회복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편마비, 언어장애 및 치매 등의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겨 사회적 복귀가 어렵고 치료 및 재활비용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며(Saeki et al., 1994), 뇌졸중의 완치율이 10% 미만이어서(Lee & Park, 1999) 후유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안고 길게 투병해야하는 재가 뇌졸중 환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보조적이거나 대안적인 치료인 보완대체요법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교육경험이 없는 재가 뇌졸중 환자의 경우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이 높았다. 이것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교육경험을 조사한 타 연구가 없어서 비교 논의할 수는 없으나 보완대체요법에 대하여 올바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뇌졸중 대상자를 위한 올바른 보완대체요법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재가 뇌졸중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시기는 47.3%가 치료도중에 이용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Mok과 Cho (2004)의 경우 51.1%가 치료도중 이용하였으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k (2009)의 연구에서도 62.0%가 질병 초기에 이용하였다. Yang 등(2004)의 연구에서도 처음 이용 시기는 발병 후 3개월 이내가 88.9%로 나타났다. 이것은 뇌졸중이 발병되고 응급치료 등이 끝나면 질병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련 정보를 활발히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결과라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맞는 보완대체요법을 효율적인 간호중재로 개발하여 뇌졸중 환자의 간호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기간은 1년 이상이 4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요법 이용 기간이 평균 약 12개월이었다는 Oh (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Mok과 Cho (2004)의 연구결과와 Jin (2009)의 연구에서 보완대체요법 이용 기간은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5.5%, 42.9%), Yang 등(2004)에서도 보완대체요법 이용 기간은 59.3%가 3개월이내로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다. 이것은 급성기를 지나 재활단계에 있는 대상자가 회복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영구적 장애에 대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보완대체요법 이용 기간이 줄어들거나 경제적 부담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연구의 시기가 다르고 Oh (2008)의 연구에서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대

체요법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45.0%임을 볼 때 장기로 요양을 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이유는 '치료에 대한 효과 기대'가 52.7%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Mok과 Cho (2004)의 연구결과 43.2%가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Yang 등 (2004)에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게 된 주증상은 "근력약화와 마비"가 64.1%로 제일 많았으며, Jin (2009)의 연구에서 이용 동기는 "병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68.2%, "질병을 낮게 하기 위해서"가 25.8%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뇌졸중 환자의 경우 보완대체요법의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말하며,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가 더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자연친화적 요법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질병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보완대체요법을 알게 된 경로는 가족 24.4%, 이웃 20.4% 순으로 많았다. Mok과 Cho (2004)의 경우 이웃 27.3%, 가족 25.2% 순이었고, Yang 등(2004)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의 소개가 45.3%, Jin (2009)의 연구에서도 가족이나 친지가 55.4%로 보완대체요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환자와 가까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완대체요법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환자는 물론 가족과 이웃을 함께 보완대체요법 교육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후 느낌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 20.9%,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15.9% 순이었다. 이 결과는 Yang 등(2004)의 연구결과에서 "증상조절에 효과가 있었다"가 95.0%, "치료효과는 없었으나 심리적 안정이 되었다" 5%로 나타난 결과, Jin (2009)의 연구결과 "증상이 좋아졌다" 39.4%, "심리적 안정이 되었다" 36.4%와 유사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Mok과 Cho (2004)의 경우 '효과가 없다' 30.9%, '혈액순환이 잘된다' 28.1% 순으로 효과가 없다는 느낌이 우세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보완대체요법 이용기간이 본 연구는 1년 이상이 가장 많고 Mok과 Cho (2004)는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유추해 볼 때 효과를 비교하기에는 기간의 차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용기간을 고려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보완대체요법이 양방치료보다 좋은 점은 "몸에 해가 없다"가 24.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정서적으로 안

정감을 준다" 16.4%, "몸을 보호해 준다" 12.9% 순이었다. Mok과 Cho (2004)의 연구에서도 "몸을 보호해준다"가 31.7%,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25.2%로 나타났고, Lee (1999)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자들은 32.3%가 "몸을 보호해준다", 25.3%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라고 응답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보완대체요법은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정통의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완대체요법 종류는 한방요법(침, 뜸, 부항, 한약)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식이 및 영양, 수기요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Mok과 Cho (2004)의 연구에서 식이 및 영양요법, 수기요법 순이었으며, Jin (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식이 및 영양요법, 한약 및 약초요법, 수기요법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Hong과 Park (1999)의 연구에서도 우황청심환, 침, 사혈, 한약의 순서로 보완대체요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또한 Oh (2008)의 연구에서 대체요법에 대한 신뢰에서 특히 한방에 대한 신뢰가 많아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한약이나 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대체요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가 뇌졸중 환자들은 질병경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치료도중에 사용하고 현대의학과 병행하고 있었으며,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또한 가족과 같이 환자와 가까운 사람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올바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가 뇌졸중환자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재가 뇌졸중 환자를 위한 동서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가 뇌졸중 환자가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교육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S시 소재 J보건소와 K복지관에 내소하여 재활 치료중인 재가 뇌졸중 환자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20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서술

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그리고 χ^2 -test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67.4세였고 질병관련 특성은 뇌경색이 59.2%로 뇌출혈보다 더 많았으며, 발병 후 기간은 '2년 이상' 49.2%, '마비' 80.1%, '재활치료' 80.1%로 각각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69.2%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진단($\chi^2=9.098$, $p=.003$), 발병 후 기간($\chi^2=34.282$, $p=.000$), 마비유무($\chi^2=9.098$, $p=.003$),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교육경험 유무($\chi^2=16.800$, $p=.000$)에 따라서 보완대체요법 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완대체요법 이용 시기는 '치료 도중' 47.3% 이용기간은 '1년 이상' 41.7%, 이용한 이유는 '치료에 대한 효과 기대' 52.7%로 가장 많았으며, 알게 된 경로는 '가족' 24.4%, 이용 후 느낌은 '혈액순환이 잘된다' 20.9%, 보완대체요법의 좋은 점은 '몸에 해가 없다' 24.4%로 각각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이용한 보완대체요법 종류는 한방요법(침술, 뜸요법, 부항요법, 한약 등) 89.2%, 식이 및 영양(약초, 녹즙, 버섯류, 옹담, 녹용, 홍삼 등) 48.2%, 수기요법(마사지, 향기요법, 운동요법 등) 38.8%, 에너지 요법(자기장 요법, 지압, 기공, 수지침, 이침, 스티커 침 등) 38.1%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재가 뇌졸중 환자들은 양방적 치료를 하는 도중 치료효과를 기대하여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재가 뇌졸중 환자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보완대체요법 교육과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리라 생각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재가 뇌졸중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연구를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를 제언한다.

둘째, 뇌졸중 환자들이 사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 효능을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Astin, J. A. (1998). Why patients use Alternative Medicin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9, 1548-1553.
- Bruce, H., & Dobkin, M. D. (2003). *The clinical science of neurologic rehabilitation*,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ng, S. T., & Park, H. S. (1999). The study on hospital arrival time and the aspect of using alternative medicine of acute stroke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1, 389-400.
- Jin, Y. S. (2009). *A study on the realities of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and decision making-related factors in patients with strok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M. S., Lee, G. J., Kim, K. W., Kwak, S. A., Ha, H. J., & Lee, J. O. (2003).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using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ies in patient with hemodialysis. *Nursing Science*, 15, 80-89.
- Kim, J. S., & Choi, S. M. (1998). *All of Stroke*. Seoul: Jung Dam Publishing Company.
-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05). *Practical affairs committe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Etiology of death 2006*. Retrieved May 2, 2008 from <http://www.kosis.kr>
- Lee, E. N., & Son, H. M. (2002). Predictive factors for use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ies in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4, 184-193.
- Lee, E. O., Kang, H. S., & Lee, I. S. (1997). A study on utilization of folk remedies by patients with arthritis. *The Seoul Journal of Nursing*, 11, 1-12.
- Lee, J. J., Oh, H. C., & Lee, S. W. (2004). A study on the cost and propor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otal healthcare cost among elderly in the last 6 months of life.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7, 141-149.
- Lee, Y. C., & Park, H. S. (1999). A study on use of alternative therapy in chronic ill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6, 96-113.
- Lee, Y. J. (1999). *A survey on utilization of alternative therapy in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Mok, S. A., & Cho, M. O. (2004). Utilization of alternative complementary remedies of stroke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6, 432-441.
-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 (2005). *What is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Retrieved November 1, 2005, from <http://nccam.nih.gov/health/whatisacam>
- Oh, H. S. (2008). A study on utilization of Alternative therapies and factors related to use among patients with strok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0, 37-47.
- Park, H. S. (2009). *Factors Affecting Chronic Disease Patients'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The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 Park, K. S., Ryu, E. N., Moon, K. S., Lee, W. Y., Lee, S. O., Kim, M. H., et al. (2003).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in elder arthritics. *The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10, 142-155.
- Saeki, S., Ogata, H., Hachisuka, K., Okubo, T., Takahashi, K., & Hoshuyama, T. (1994). Association between location of the lesion and discharge status of ADL in first stroke patients. *Arc-*

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5, 858-860.

Yang, C. Y., Shin, Y. I., Joo, M. C., & Kil, R. Y. (2004). A survey on the use of oriental medicine and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in the stroke patients of Korea. *The Journal of*

Wonkwang Medical Science, 19, 311-322.

Yoo, H. S., Lee, Y. Y., Suh, Y. H., Choi, W. J., Jo, J. H., Lee, Y. W., et al. (2000). Study on alternative medicine in cancer therapy. *Journal of Korean Oriental Oncology*, 6, 125-148.